

# 상대평가제 이번 학기부터 개선

## 'A' 학점 적용한계범위 최대 25% ... 'B' 학점 정원 50%로 늘려

### 보완작업 계속 진행

지난 96년도부터 학부제와 함께 시행되었던 상대평가제가 빠르면 이번 학기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대평가제가 실시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선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여 성적산출 기준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성적산출 기준을 살펴보면 A학점은 0-20%, B·C학점은 20-40%, D학점은 0-20% 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성적산출 기준은 A학점이 0-20%, B·C학점은 0-50%, D·F학점은 무제

한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학점의 적용한계범위를 늘리지 않는 대신 전체 5%이내의 동점자는 A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상대평가제는 성적산출이 일정한 비율로 매겨져 기업체와 학위에서 바라보는 대학 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더욱 계속 유지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전의 절대평가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변별력이 떨어졌고 면학분위기의 조성과 외부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지난 96년도부터

실시해온 상대평가제를 계속 유지하되 공정하게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완화해 실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평가제는 교수의 재량권을 침해하고 학생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산업대와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백58개 대학 가운데 30 여개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등 학사관리를 대폭 강화해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대 총학생회는 상대평가를 포함한 학사구조조정에 반발해 지난 5월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서울대의 경우 분관 점거농성 등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상

대평가는 교양과목에만 제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캠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며 "무한경쟁만을 강요하는 상대평가제를 통한 학교의 위상정립 노력은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있어 학문탐구보다는 점수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만 몰리는 등 대학이 점차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한다는 우려 속에 상대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

지난 26일부터 오늘(28)까지 서울 무역전시장에서는 전국 67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200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 본교 또한 이 행사에 참가해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지면안내

- 제4회 인권영화제 7면
- 생협 창립 2주년 의미와 과제 2면
-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말한다 4면
- 21세기 대학과 대학인 5면



### 젊은이에게 주는 부처님의 충고

윤정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은 왕사성의 영취산에서 만난 장자(長者)의 아들 '실갈라'라는 젊은이에게 '해서'는 '안될 일' 열네가지를 충고한 일이 있었다. 이 열네가지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이세상에 서도 잘 살고, 후생에 가서도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고 단언했다.

첫째,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 탐욕과 성냄과 두려워함과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된다. 셋째, 인생을 망치는 여섯가지를 멀리해야 하나니. 술에 취하고, 도박하며, 방탕하고, 풍류에 빠지며, 나쁜 친구와 어울리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다. 덧붙여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여섯가지의 나쁜 짓이 왜 인생을 망치게 되는지, 그 까닭을 소상히 말씀해 주었다. 술을 마시면 재산을 허비하고, 병이 생기며, 잘 다루게 되고, 나쁜 이름이 퍼지게 되고, 성을 잘내며, 지혜가 줄어들게 된다.

도박을 즐기면 재산이 줄어들고, 원한이 생기며, 지혜로운 사람이 타일러도 듣지 않으며, 나중에는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방탕하면 재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며, 항상 놀라고, 불안하고, 온갖 괴롭고 나쁜 일에 시달려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남을 속일 꾀를 내고, 으스스한 곳을 좋아하며, 남의 여자를 유혹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남의 허물 들추기를 좋아하게 된다. 게으름에 빠지면, 있을 적에 있다고 일하지 않고, 없으면 없다고 일하지 않으며,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더운다고 일하지 않으며, 이르르면 이르다고, 늦으면 늦었다고 일하지 않게 되나니, 이런 짓에 빠지면 누구나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였다.

겨울방학을 맞아 젊은이들이 교문을 나서면 인생을 망칠 여섯가지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부디 부처님의 충고에 귀 기울이기를...

### 19대 오복원 이사장 취임축하연 오늘(29일) 오후 6시 상록원서

제19대 동국학원 이사장 오복원 스님 취임 축하연이 오늘(29일) 오후 6시 상록원3층 교직원 식당에서 열린다.

오복원 이사장을 비롯해 송석구 총장, 권도갑 총동창회장, 서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등 학내외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삼귀의례 △송새운 법인사무처장의 경과보고 △송석구 총장 식사 △서정대 총무원장과 권도갑 총동창회장의 축사 △오복원 이사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영훈 박사 석좌교수 임명 양자가능 반도체 연구 예정

미국 IBM사의 왓슨 연구소에서 활동중인 이영훈 박사가 지난 15일 본교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본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63년 석사학위를 받은 이박사는 지난 66년 도미, 현재까지 미국에서 연구생활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 1년동안 SR에서 강태원(물리학) 교수와 함께 양자가능반도체를 연구할 예정이다.

### 경주캠 총학·총여 투표 12월 1일 진행

#### 단과대 선거 대부분 마무리



지난 24일 열린 경주캠 중앙기구 1차합동유세에서 총여학생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캠 총학과 총여 선거의 투표가 오는 12월 1일 치러진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후 1시 백상탑 앞에서 경주캠 17대 총학생회 후보자 기호 1번 정=이정식(경제3) 부=박수대(생물3)조와 기호 2번 정=박제섭(영문3) 부=손동현(관경3)조의 합동유세가 진행됐다.

이날 합동 유세에서 기호 1번 이정식·박수대 조는 "학생자치 권력이 회복된 학생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어 기호 2번 박제섭·손동현 조는 "학생

### 3차 정부지원인턴 모집 다음달 3일까지 접수

서울·경주 양캠 취업지원팀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제3차 정부지원 인턴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00년 2월)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집의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학생처 취업지원팀에서 실시하며, 제출서류는 인턴희망신청서(3x4 반명함 사진 1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타자격증 및 어학성적 사본이다.

### 창업보육센터 12월중 업체모집

#### 서울캠 동국관 2층에 개원 예정

지난 5월 멀티미디어·문화예술 창업보육센터와 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공간조성문제로 미루어졌던 서울캠 창업보육센터 사업시행이 12월 중순 입주업체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갖추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희망자를 일정기간 입주

시켜 기업화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해줌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업보육센터는 동국관 2층의 경쟁 상대 자리에 미디어아트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으로 기존의 BSC등과 연계해 본교의 정보통신분야 특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에

게 창업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을 비롯해 △대학의 체계화된 이론, 기술, 경영분야의 연구업적을 기업화, 상품화로 구체화 △기업이론 및 실무교육의 기회 제공 △산학공존으로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장 제공 △대학의 실용 및 연구기자재를 기업화 상품화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정보관리학) 정보관리실장은 "학내외의 기업인과 재학생, 교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마 · 감 · 임 · 박

### 제 37회 동대 학술상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 본상 및佳作  
사회과학상 - 본상 및佳作  
자연과학상 - 본상 및佳作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 상: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佳作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 14회 동대 문학상

△모집분야: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시부문 - 3편내외  
소설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 상: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적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대신문사 02)2260-3491/2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 발전기금 ARS 7000-119

그간 동대신문에 주신 많은 질책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대신문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전국의 고교교사, 사찰 및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으로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격려주실 분은 구독료 납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조흥은행 313-04-579764 (예금주: 양영진)

■구독료 : ₩10,000(1년분)

**동대신문사**

# “생활협동조합 독립법인화 필요하다”

## 지난 27일 창립 2주년 맞아 ... 조합원들 주인의식 높여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 민주적, 창조적 운영을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대학의 생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할’이라는 목적하에 본교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 재학생 등을 조합원으로 출범한 본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이 지난 27일 창립 2주년을 맞았다.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27일에는 학내 생활매장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하해 학생들로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학내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학과 민주적 활동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본교 생활은 전국대학중에서도 모범적인 곳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복지라는 개념에 ‘경영’을

도입해 학내의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 97년 출범이후 실질적으로 학내 복지를 도맡아왔던 본교 생활은 상록원과 동국관식당, 공대 아리수 매점, 교내 자판기 관리 업무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생활 우정장학금 지급 등 학내 전반적인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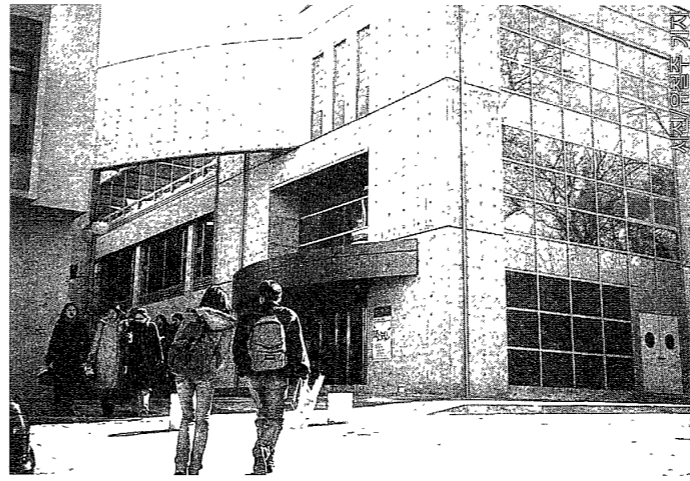
그러나 생활출발 초기와는 다르게 학내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약해지고 학내 복지문제로 인한 갈등 표출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상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수, 학생, 직원 등을 대표해 대외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좀더 활발한 논의와 논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생활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9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지난 8월 6일부터 발표된 생활법은 생활의 독자적인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생활이 법인화 될 경우 △내외적인 공신력 강화 △세무(부가가치세 납부)관련 문제점 해소 △생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학내복지 향상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학교 법인의 과 평등한 관계유지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교 생활 또한 법인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진정한 독



중앙 복지공간인 상록원은 생활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매장이었다.

립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6일 낮 12시 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17차 정기이사회에

서 현 김진철 이사장이 2대 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 만불봉안 3차 봉불식 개최

### 다음달 13일 대각전서

만불봉안을 위한 제3차 봉불식이 다음달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90주년 기념문화관 대각전서 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봉불식, 2부 봉불식, 3부 점심공양의 순으로 진행되며 1부에서 송영방(미술학)교수가 불화를 점안 한다. 지난해까지 2천2백29명의 원불봉안자에 이어 올해에는 2백50여명이 원불봉안을 희망했으며, 수익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여진다. 이와 관련해 송영방교수는 “이번 점안식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불화점안에 대해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전했다.

## 주한 독일대사 초청강연 열려

### ‘21세기 한국의...’ 주제로

경영대학원(원장=조희영·경영학)은 클라우스 윌러스 주한독일대사를 초청, ‘21세기 한국의 파트너로서 독일과 유럽연합’이란 주제로 경영환경특강을 지난 23일 90주년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했다. 한국독일학회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윌러스 대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경제공동체에 대한 각 국가간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면서 유럽연합 탄생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는 상호간의 긴밀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통일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계절학기 개설강좌 시간표 확정

###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수업

교무처(처장=신재호·정치공학) 학사지원실은 지난 22일 계절학기 개설강좌 및 시간표를 확정 공고했다. 개설이 확정된 강좌는 광전지공학, 교육연구법을 포함한 오전 13강좌와 시사영어, 영화의 이해를 포함한 오후 12강좌 등이며 수업은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6일간 원충관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강좌 담당자는 각 대학에서 결정된 후 바로 공지할 예정이며 수강신청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과목명과 학수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99끼장터 연말결산대회’ 진행

### 손재현 무용단 축하공연도 마련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오늘(29일) 오후 5시에 학림관 소강당에서 ‘99 끼장터 연말결산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 계산관 앞마당에서 열렸던 끼장터는 재능있는 일반 학생들에게 공연무대를 제공해 학내 문화공간을 형성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춤과 테크노댄스를 비롯한 동화구연, 색소폰연주, 노래, 클래식 기타연주, 합창·재즈댄스·차차차,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손재현(체육교육) 무용단의 축하무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 학교장추천 공과대 정보산업대

원서접수 ...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체육관에서 진행된 전반기 특목모집 원서접수 마감결과, 서울캠은 7백52명 모집에 3천4백66명이 지원해 평균 4.61:1의 높은 경쟁률을, 경주캠은 3백45명 모집에 5백88명이 지원해 평균 1.70:1의 경쟁률을 보였다.

(☎) rocket123@cakra.dongguk.ac.kr

## 노조, 임금 14.5% 인상 요구

### 12월초부터 학교당국과 협의 예정

전국대학 노동조합 본교지부(지부장=백경선, 이하 노조)는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2000학년도 임금협정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임금협정 요구안을 살펴보면 지난 98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동결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 인건비의 기본급 인상분인 3%

를 기준으로 6%인상을 적용하며, 2000학년도 순수 인상율은 전기 임의의 인상률인 8.5%를 적용하여 전체 14.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요구안에 기능직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6등급, 7등급 수당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월초부터 학교당국과 2000학년도 임금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2000학년도 임금 인상과 등록금 인상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어 학생, 학교 당국과 노조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 동원학술상 심사결과 발표

### 한정호씨등 3명 수상 영예

대학원(원장=민태진·화학)과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종·입학과 박사과정3학기) 공동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동원학술상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등 4개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학술상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계열=한정호(미술사학과 석사과정4학기): 황룡사 재조명을 위한 시론 △공학계열

=김성포(화학공학과 석사과정4학기): Development of hepatocyte spheroids immobilization technique using alternative of encapsulation method, 박명철(화학공학과 박사과정 3학기): 아르킬산 합량과 분자량에 따른 수계 아르킬 접착제의 접착물성 변화. 시상식은 오늘(29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백만원씩이 주어진다.

## 고수동정

▲목정배(불교학)=지난 19일 한국불교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이민웅(응용생물학)=한국식물병리학회 99주계총회에서 부회장으로 피선.  
▲김세곤(불교이동학, 한일교육학회회장)=오는 3일부터 4일까지 본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한·일 교육학의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황순구(한문학)=경주캠 도서관에 소장시집 3천권, 일반학술지 3천권, 기타 논문 4천권 등 도서 일만여권 기증.

## 영문과 다음달 18일 동문의 밤 개최

영문과 총동문회(회장=허천택·영문학)는 다음달 18일 오후 5시 30분에 상록원에서 ‘동문의 밤’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익명의 한 동문이 6백만원을 기탁할 예정인데, 2명의 재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나머지는 학과발전

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96년 학과개설 50주년을 계기로 조성한 1억원의 장학기금으로 재학생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동문회의 활성화로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	심규박	이메일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02)2260-348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동국로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81·2 팩스 (02)2278-1270 전화 (066)1770-2088 팩스 (066)1770-2087

## 200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및 전과(부) 안내

### ◇ 수강신청 (경주캠 추후 공고예정)

1. 수강신청기간 : 99. 12. 8(수) ~ 12. 10.(금)
2. 장소 : 서울캠 교내 컴퓨터실습실
3. 대상 : 99-2학기 재학생 전원(복합예정자 포함)
4. 수강신청원 교부 및 접수 : 각 대학 교과과(야간강좌 교과처) 및 학부(과)
5. 유의사항
  - 가. 수강신청시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을 정확히 확인바람.
  - 나. 학생은 자신의 전공교육과정 중 3,4학년이 개설된 전문교육과정에서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 75분강의제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강의시간 체제를 숙지하기 바람.
  - 라.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함.
  - 마. 학업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수강신청원 자정시간 컴퓨터 실습실 입장이 가능함.
  - 바. 이번 수강신청 결과에 의하여 분·폐강 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전원 수강신청하기 바람. 미신청으로 인하여 정정기간중 수강정정기간중 수강분가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람.
  - 사. 원격수강신청을 시행하니 희망자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 1) 원격수강신청 : 학교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PC를 Dial-UP Modem을 통해 학교 LAN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하는 방법
    - 2) 접속방법 : 학교 홈페이지(http://dgucc.dongguk.ac.kr/homestart.html)에 접속한 후 학사안내의 원격수강신청접속방법을 참조하기 바람.
  - 아. 강의계획서는 별도로 배부하지 않으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함.
  - 자. 200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수강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학강의시간표 책자를 참조하기 바람.

### ◇ 전과(부)

1. 지원자격
  - 1학년 전과정을 수료하고 총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 포함) 3.0이상인 진급예정자
2. 전과 대상학과(부) : 원직상 계열제한없이 전과(부)
3. 제한사항
  -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과
  - 나. 캠퍼스간 전과
  -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중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부)
  - 라. 한의학(예)과, 의학(예)과로의 전과
  - 마.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단,체육특기자로서 체육교과과로의 전과지원가능)
4. 전과허용인원: 전입 학부(과) 99학년도 입학정원의 20%
5. 시행일정
  - 가. 원서접수
    - 1) 접수처 : 소속대학 교과과(야간은 야간강좌 교과처)
    - 2) 접수기간
      - 서울캠 ① 재학중인 2학년 진급예정자 : 99. 12. 13(목)~15(수)
      - ② 2000년 3월 2학년 복학예정자 : 2000. 2. 28(수)~24(목)
      - 경주캠 ① 재학중인 2학년 진급예정자 : 99. 12. 1(수)~3(금)
      - ② 2000년 3월 2학년 복학예정자 : 2000. 3. 2(목)~3(금)
    - 3) 구비서류 : ①전과(부)원서 ②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30,000)를 납부하여야 함
  - 나. 전형(면접 등) : 2000. 2. 28(월)
  - 다. 대상자추천 : 2000. 3. 2(목)
  - 라. 전과허가(확정·공고) : 2000. 3. 3(금)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가. 일반계열 : 1학년 성적평점(100%) + 면접
  - 나. 예능계열 : 1학년 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 다. 사범계열 : 1학년 성적평점(9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 라. 체육교육과 : 1학년 성적평점(8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 실기고사(30%)

## 교 무 처

## 교수 초빙

### 【초빙분야】

#### ■ 전임교원

경주	학 과	초빙분야
캠퍼스	의학과(기초)	예방의학(역학), 생화학, 해부학, 생리학

1. 초빙인원 : 각 분야별 1명.
2. 자격
  -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서, 1998년 3월 1일 이후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분(학위논문은 임용예정일(2000.3.1)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경우 만 연구실적으로 인정함)
  - 나. 접수일 현재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및 의사면허증 소지자로서, 1960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 단, 국제 저명 학술지 수록(SCI)에 1998년 3월 1일 이후 논문 2편이상 게재한 분은 연령제한 없음.
  -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분.
3. 기타
  - 가. 전임강사, 조교수의 경우에는 각각 2년, 4년의 계약제로 임용하며, 연구실적목표는 96. 3. 1 이후 발표된 논문, 저서 등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심사위원 순위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 국·내외 학위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행기관 주소를 필히 명기하여야 함.
  -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원본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신고 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라. 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마. 인터넷이용자는 웹주소 http://www.dongguk.ac.kr에 접속하면 교수초빙 공고문 및 교원임용지원서를 Down 받을 수 있음.

## 기획인사처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99학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결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1. 발급기간 : 12. 6(월) ~ 12. 10(금)
2. 발급장소 : 해당대학 교과과
3. 발급대상 : 99학년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전체(휴학생 포함)
4. 유의사항
  - 가. 복학생 중 휴학할 당시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99학년도 1기 또는 2기에 복학한 학생은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서울캠퍼스 (☎) 2260-30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무 처 장

# 경주캠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 지정연 주최... "지역사회와 경주캠 상호협조 체제 구축 기대"

지역정책연구소(소장=박병식·행정학)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율호관 소강당2에서 '동국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 기념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공존적 협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될 이번 행사는 4개의 주제로 1, 2부에 걸쳐 치러진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최규

철 부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원식 경주시장이 환영사를 이장수 경주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송석구 총장이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김영중 지역개발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1부에서는 △경주캠퍼스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발표자=이시영 상경대학장, 토론자=손영태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성수 경주상가 발전협의회 회장) △경주캠퍼스가 경주지역 보건·복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이동철 의과대 교수, 토론자= 변영우 경주시 의사회장, 김현덕 경주신문사 발행인) 등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박병식 지역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될 2부 행사에서는 △경주캠퍼스가 지역교육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발표자=하현국 상경대 교수, 토론자= 이상기 경주경찰서 전 집행위원장 위원, 박병중 경주 YMCA 사무총장) △선진국에 있

어 대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발전적 관계(발표자=한영환 자연대 교수, 토론자=최해구 경주JC특우회 회장, 이진락 경주시의회 의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학술심포지엄과 관련해 박병식 소장은 "영남권 지역에 본교 특성 홍보 및 경주지역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현) Terry@mail.dongguk.ac.kr



선거 공청회...

지난 24일 총학생회 후보자와 현 학생회를 대상으로 선거공청회 및 공개좌담회가 언론 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회전무대

## 금승아제(?)

O...학생회 후보자=금승아제(?) 무수말고도 하니 온방골 선거가 한창인 요즘 각 단체 및 자치기구 각각의 회장단 후보자들은 선관위의 많은 선거비용 요구로 인해 가슴앓이를 한다는데.

알아보니 총학 50만원, 법정대 30만원, 졸준위 30만원 등 턱없이 많은 선거비용이 대자보 및 PC제작에 쓰여진다고.

이에 한 후보자 왈 "비용때문에라도 꼭 당선돼야죠!"

## 불청객

O...초대받지 않은 손님(?)

지난주 온방골 학생회관에서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불청객과 수위 아저씨와의 한바탕 결투가 이뤄졌는데. 내용인즉 자정이 지나면 통제되는 출입문을 두고 수위아저씨와 술취한 학생과의 실랑이가 목설과 출입문 파괴(?)라는 극한 상황까지 몰고가 이를 지켜보던 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이에 한 회전무대자 왈 "안녕하십니까? 출입문 말씀입니까? 번호는 달하라 달려라입니다!"

## 나 가서 먹어!

O...학교에 음식물 반입 금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먹먹골에 밤늦게 남은 학생과 교직원들은 여전히 밖에서 식사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물론 위생상의 이유로 금지시킨 학교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대안편을 못한 것은 무심한 처사라고 늦게 남은 정도로 바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학교에 남아 배고픔을 호소하는 학생 한마디 "철가방이 아니면 죽음을..."

## 주요소 습격사건 2

O...영화를 모방해 주유소를 습격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강·철도를 일삼아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 새벽 주유소에 들어가 현금과 수표를 포함해 주유권까지 빼앗는 대담성을 보였다하니. 조사결과 일당중 한명이 주유소를 습격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를 본 것을 계기로 범행을 계획했다는데.

이에 한 회전무대자 왈 "모방범죄 언제까지 문제일 것인가, 누가 좀 막아줘요!"

# '석굴암의 신(新)연구' 학술발표회 진행

## 통일신라 석굴암에 대한 다각적 접근 시도

신라문화연구소(소장=최효식·국사학)는 본교 학생 및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과 11일 양일간 경주 교유문화회관에서 '석굴암의 신(新)연구'라는 주제로 '제2회 통일신라문화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통일신라 예술의 정수인 석굴암에 대한 역사, 미술사, 건축사, 관광개발 측면의 다각적 접근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10일 1부에서 △석굴암 건립의 정치·사회적 배경(곽승훈·목원

대 사학) △석굴암 본존불 및 내벽 불상 연구(박영국·일본학술진흥회) △토함산 석굴의 점정과 그 배경(장종식·본교 대학원 미술사학) △석불사의 건축 원형과 보존(윤재신·이화여대 건축공학)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또한 2부에서는 △석굴암과 중국 석굴사원의 관계(배진달·용인대 문화보존학) △석굴암의 연구사 정리(박찬홍·고려대 사학) △석굴암의 경관해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홍광표·동국대 조

경학) △우리나라 역사환경 해설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불국사·석굴암의 방면객 해설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서태양, 이충기·동국대 관광대학, 이주희·대구대)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11일에는 정영호(한국교원대 역사교육) 교수를 비롯해 본교 김동현(대학원 미술사학), 김상현(사학), 문명대(미술학)교수 등 10여 명의 학자들이 발표자와 함께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완공된 석림원... 준공식을 앞둔 석림원의 모습. 석림회가 지난 97년부터 3년간의 모금활동으로 추진해왔던 비구수행관 준공식이 다음달 1일 오전11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로써 비구수행관이 좋은 환경에서 정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이후 오복원 이사장은 석림원 건물 이양서를 학교측에 전달한다.

(현) Terry@mail.dongguk.ac.kr

# 생활관, 관생 선발

##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금강생활관(관장=김복순·국사학)은 다음달 1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2000학년도 1학기 생활관생'을 선발한다.

관생모집의 원서 교부는 금강생활관 관리팀 사무실이고 △자격=재학중인 학생으로 2000학년도 1학기에 계속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선발기준=불교신자 우선 선발, 성적 및 품행 참고 선발, 기타 관생 선발 기준에 따른다. 제출서류로는 △생활관 지원서 1부 △불교도 신증 또는 수계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등이다.

합격여부는 불합격자를 포함해 동계 방학중 가정으로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관생 선발과 관련해 김복순 관장은 "생활관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기간내에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부총장배 생활체육 베드민턴 대회 개최

본교 교직원 베드민턴 클럽(회장=오영석·행정학)은 지난 21일 문무관에서 '제11회 부총장배 생활체육 베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부터 참가범위를 확대시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경주시 9개 클럽, 1백 8개팀이 참가했으며, 결과는 △1위=반월성 △2위=라송 △3위=동국대 교직원 등이 입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철 부총장은 "대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이라 말했다.

# 도서관, 교수추천 도서구입

## 1백 89권 대부분 전공양서

도서관(관장=이석장·영문학)은 교수추천도서를 신청해 1천 5백만 원의 예산금으로 'Natural System of House Design' 등을 비롯한 1백 89권의 도서를 구입했다.

이번에 구입된 도서는 대부분 전공 양서이며, 외국학술잡지 △미국-3백 13종 △일본-66종 등의 도서가 교보문고로 부터 구입할 예

정이다.

아와관련해 도서관 한 관계자는 "도서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즉시 학생들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서관은 기말고사 기간인 오늘(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4층 제2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 다음달 8일 정각원 종강법회 개최

## '불교의 윤리관' 주제로

정각원(원장=정성분·불교학)은 다음달 8일 오후 4시 정각원 선실에서 '교직원 법회 및 종강 법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윤리관'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이번 종강법회는 △1부=불교 윤리관에 대한

법해스님 강연 △2부=다과회 순으로 치러진다.

법회와 관련해 정성분 원장은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종강법회인 만큼 학생과 교직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1면에서 계속

△인문대=지난 24일 기호 1번 정: 정재훈(사북4) 부: 김상미(영문3)조가 총 유권자 2천 7백명 가운데 1천 4명이 선거에 참여해 67.07%의 투표율을 보여 총 5백 86표(58.3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관광대=지난 23일 단독 입후보한 정: 이교형(관경3) 부: 최서용(관경3)조가 총 유권자 2백 93명 가운데 1백 72명이 선거에 참여해 75.4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1백 37표, 반대 29표, 무효 6표를 얻어 79.6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의과대=지난 25일 단독 입후보한 정: 지예섭(본1) 부: 임재우(본1)조가 총 유권자 4백 87명 가운데 3백 24명이 선거에 참여해

66.5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 2백 50표, 반대 57표, 무효 8표를 얻어 79.9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이에 앞서 의과대학생회에서는 지난 23일 의학관 종합강의실에서 1백 50여명의 의과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 공청회를 개최했다.

△졸준위=지난 24일 기호 2번 정: 신성식(법3) 부: 최성원(국사3)조가 총 유권자 1천9백84명 가운데 1천44명이 투표해 52.06%의 투표율을 보여 총 7백표(67.0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학생복지위원회=지난 22일 정: 민성길(사북3) 부: 김미선(경영3)조가 8명의 유권자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1표로 당선됐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 10대 언론협의회, 선거 공청회 및 공개 좌담회

# 17대 총학 후보자 "학내 복지부분 힘쓸터"

## 99학년도 학생회 공약사업, 불이행 다반사

본지는 제 10대 언론협의회(의장=박양우·국제관계3)가 지난 24일 백상당 앞에서 2시간에 걸쳐 개최한 선거 공청회 및 공개 좌담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발췌했다.

- 참석자
- 17대 총학생회 후보자
- 기호 1번 정=이정석(경제3)·부=박수대(생물3)
- 기호 2번 정=박재섭(영문3)·부=손동현(관경3)
- 16대 총학생회 이상섭(불교4)회장
- 16대 총대의원회 이상혜(회계4)의장
- 10대 학생복지위원회 김중훈(사북4)위원장

### 선거 공청회

공동 질의사항  
-2000학년도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등투 방향은  
=기호 1번: 수원대의 이월적립금이 30여 억원이 되는 반면 본교의 경우 훨씬 많은 적립금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학교측은 등록금을 14% 인상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등록금 인상의 정당한 근거 제시 및 올해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할 것이다.  
=기호 2번: 등록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예산이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주어지면 문제가 안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고, 만약 등록금 예산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등록금 투쟁을 할 것이다.

-본관건립에 따른 공간 배치 및 그로 인한 율호

관 내 효율적인 공간배치 계획은  
=기호 1번: 12월에 본관 설계도가 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공간배치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관건립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뿐만 아니라 학과, 동아리, 학회 등 소수의 공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호 2번: 공간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본관 건립은 당연하다고 보며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수렴해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

-반드시 실행할 선거공약 사항 3가지는  
=기호 1번 우선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16대 총학에서 교육개혁투쟁을 꾸준히 진행해 오긴 했으나 활발히 전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하여 학내 여러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포럼과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학교정책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내년에는 학교버스를 동원해서라도 학교 셔틀버스 운행할 것이다. 셋째, 도서관내 방음벽 설치와 비효율적인 열람실 자리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등 도서관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덧붙여 학교와 협의해 정기간행물실의 턱없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겠다.

기호 2번: 우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감제한 조치를 철폐하겠다. 다음으로 간단한 복지시설의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한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내세운 공약 중 농구시설 보수 및 개선, 히지 정류장 설치 등을 중심적인 사업으

로 펼쳐나갔었다. 또, 학우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 사업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취업문제 대책 방안은

=기호 1번: 취업대책 노동국을 설치해 실업특별 장학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호 2번: 총학내 취업대책국과 졸업준비위원회와 연계해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부터 취업할 때까지 학생관리를 하겠다.

### -99학년도 학생회 평가는

=기호 1번: 무엇보다 중운위가 성공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집회의 경우 학생들을 집회에 끌어들이기 위한데만 중점을 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는 집단이기주의라는 학생회 집부들의 생각만이 반영됐다.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동국 네트워크와 BBS를 보다 활성화시켜 학우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할 것이다.  
=기호2번: 거의 모든 학생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에만 치우쳤던 것 같다. 집단이기주의가 깊어져 학우들간의 신임을 잃어버렸다. 또, 타지역 및 대학 간의 교류가 너무 없어서 정보도 뒤떨어졌다.

### 선거공약 사항에 대한 개별 질의사항

-노동국 신설에 대한 활동 및 구체적인 설명은(기호 1번)  
=전체학생들의 학생회비가 8천원이라면 10년이면 엄청난 액수가 적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학생회비를 이용해 예비 졸업생들을 위해 일종의 장학금이 지급하도록 하겠다.

-선거 공약집과 관련해 현재 시행되고 강의평가 제와 구별된 점과 학과 교수 총원은 어떤 기준으로

로 각 학과에 배당 및 확보할 것인가(기호 2번)

=본교에서 시행한 강의평가제는 형식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강의평가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 명난방 설치, 수강신청 제한 철폐 등을 학교측에 계속 요구할 것이다. 또, 강의 계획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래 강의계획서는 수강신청 전에 나와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데 본교는 수강신청 후에 나온다. 수강신청할 때 강의계획서가 첨부되도록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 교수 총원에 있어서 소속 학과장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학과장의 선택이 아니라 학생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수 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공개 좌담회

-총학의 전체 사업 기조, 역할에 비춰 봤을 때 올해의 총학을 평가한다면(16대 총학회장)  
=지난 한해 총학에서 내건 사업은 노동계와 연계해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주캠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올해의 총학은 교육 개혁투쟁과 학내 복지투쟁을 주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했으며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건설을 학교측에 제안하고, 학생회와 학교측과의 지속적인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으나 실상 성과는 없었고, 전국적인 연대도 펼치지 못했다.  
2학기에 접어들면서 계열별 모임인 반대, 수업료 기성회비 통합, 등록금 인상반대 등이다. 성과라던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지만 총학만의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학내 복지개선의 경우 식당투쟁의 목표는 장기독점을 하고 있는 현 업주의 교체와 식당질을 높이는 것이었고 바꾸는 것 자체가 성공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식당 전면적인 개편은 무리였다. 결론

적으로 학우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총대의 공약사업 중 단체 대의원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는(16대 총대의장)

=드러나는 사업은 없다. 정기총회의 경우 공문, 자료지 배포, 전화, 편지 등 여러 방안을 써보았지만 성사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단체 대의원의 활성화의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총대 감사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총대감사는 자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를 갖지 못했다. 또한 자체 감사가 이뤄진다면 너무나 세세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아마도 매 분기마다 검토 20개 정도, 주20개 정도가 나올 것이다. 학생회 및 자치기구도 별반 다를게 없다. 또한 알려주기 위한 자보는 형식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보화 하지 않았다.

-복지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학복위원장)

=올해 초에 구성된 복지소위원회는 공개입찰 당시 LG측이 제시한 공약사항 중 장학금, 예산공개 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복지소위원회의 역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학교측에 예기는 꾸준히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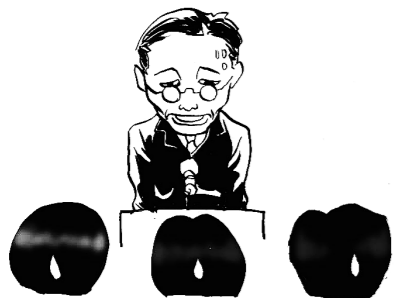
-올 한해 학복위 사업 활동은

=경제적인 부문에 치중을 하였다. 선건중, 경주업체중 복지가맹점을 20곳을 선정하여 IC카드를 발매하였다. 특가를 1년에 4번 정도 실시하였다. 생활문화운동으로서 식당위생조사하고 추석귀향버스 등을 실시했다. 전체적으로 더 많은 학우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별반 성과는 얻지 못하였다.

정리= 대학부

동약로

불안한 희망



“2000학년도 총학생회 임후보자 공청회 및 좌담회가 잠시 후 이곳 백상탑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백상탑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곳으로 시선을 돌린다.

“지금부터 총학생회 후보자들에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청회와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할 기자분 나와주시십시오”라는 언론협의회의 의장의 말이 끝나자 바로 공청회가 시작된다.

“현 학생회가 가진 모순과 이에 대한 대안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며 한 기자가 후보자와 학생회 간부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던지지만 ‘잘못했다’ ‘반성한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성의없고, 불투명한 대답만을 난발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및 공개 좌담회는 총학생회 후보자와 현 학생회 간부들의 변명 투성이 대답이 국회 공청회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돌고자 버렸다. “학생회 사업을 학우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했다면 학생회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뱉는 현 학생회 간부들, 이들을 보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가 진정한 학생대표기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라는 듯 말하는 후보자들의 눈길에서 내심 불안함을 감출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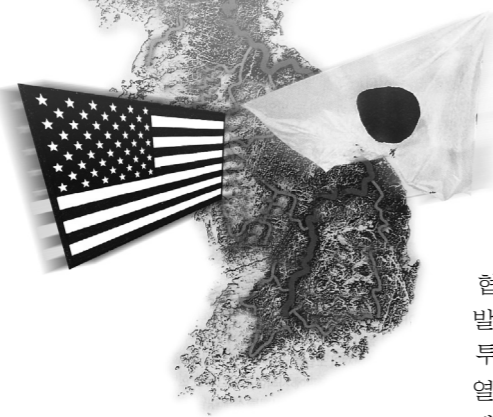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말한다

“민중의 참여속에 민중을 위한 협상으로”

글 쓰는 순서

- 1. 한미투자협정은 무엇인가.
2.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
3. 우리의 대응 방향



외국자본은 우리경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쌀 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WTO 협상, 유명 배우들의 스크린쿼터제 사수 농성으로 알려진 한미투자협정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등 민중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되는 한일투자협정. 이것들은 모두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역 및 투자의 세계화·자유화·개방화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협정은 정부가 외환위기 와중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투자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주도

를 펼쳐지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공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국·일본 등 초국적 자본에게 우리자본과 똑같은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점 △투자협정의 기초가 될 표준안의 내용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등으로 인해 정부의 생각대로 긍정적이기 보다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나라의 경제주권을 통째로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지난 9월 15일에는 민주노총, 민교협, 전농, 민예총 등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협정·밀레니얼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 발족했다. 이들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투자협정과 오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뉴라운드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80여 개국 9백여 개 단체와 함께 밀레니얼라운드 협정 참가 전면 거부운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간의 ‘민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시애틀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또한 한국에서도 정부에 한미·한일 투자협정 체결 계획을 중단하고 협상전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중심·반주변·주변으로 서열화 돼있는 세계경제에서 일련의 투자협정을 통한 개방화·자유화는 중심국과 초국적 자본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투자협정을 전면 거부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만을

위한 권리헌장이다. 투자협정체제에서 시민·민중 그리고 공동체에 유리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대부분은 주식 및 외환시장 등에 대한 투기일 뿐이며 실사 직접투자 형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민·민중·공동체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의 부과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한일 투자협정이 어떠한 영역에 걸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투자협정의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연대 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씨는 “투자협정 표준안을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협정들은 철저하게 해외투자자인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문화, 환경, 노동, 인권 등 모두에 유리한 투자를 위해 어떠한 제한 조건들이 필요한 가를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는 정부에 대해 초국적기업의 이익에 봉사할 뿐인 한미투자협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계획을 중단하고 협상과정을 즉각 공개해야하며, 더욱 악화된 고용, 빈곤, 환경 문제를 민중들의 전면적 참여 속에서 조사·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가 한미·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합리적 이익을 위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시민·사회단체 및 민중들의 전면적 참여 속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부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민주항쟁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

지난달 16일 개원 민주화의 살아있는 역사 공간

우리가 일어서면 바뀐다.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영주동 산허리에 있는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의 외침이 있던 부마항쟁 20주년을 맞아 ‘부산민주공원’이 개관돼 민주항쟁의 주요 모습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4·19 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져온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이 민주공원은 1백 6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16일부터 개원식을 갖고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이곳의 전시관은 각 테마별로 구성돼 있으며, 다시 한번 치열했던 민주항쟁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주의 문예서부터 시작되는 자유의 부르짖음을

은 민주열사들의 굳게 움켜진 두주먹과 함께 사위의 모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회상의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흑백 필름 속에서서는 독재와 반민주를 향해 뛰어드는 민주항쟁의 장면들이 펼쳐진다. 그리고 뒤이어 전개되는 ‘부산의 함성’과 ‘희망의 빛’은 민주항쟁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살려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역할을 맡겨주고 있다. 또한 ‘추모의 공간’에서 접하는 과거의 ‘기록들은 반민주적인 구조속에서 민주열사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고난들을 느끼게 했다.

이밖에도 민주공원에는 국제회의와 학술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들이 마련돼 있으며, 또한, ‘고난, 추념, 염원, 정의의 장’으로 이름 붙여진 시민 휴식공간도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 공원 앞에 위치한 푸른 바다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이처럼 민주공원은 민주항쟁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전시된 ‘살아있는 역사공간’으로서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민주주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부산민주공원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함성이 또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이 함성 속에서 우리는 험난했던 민주화로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민주항쟁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언론비평

“여전히 ‘난장이’는 소외되고 있다”

노동자나 학생들 또는 민중들이 모여 집회를 갖거나 혹은 정권의 상상에 어긋나는 민중에 대한 탄압이 있었을 때 일간지를 뒤적여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역시 그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됐다고 해도 매우 간략하게, 때에 따라선 심지어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그 안에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성 언론들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설 같은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정치문제에 대해 열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사회의 비록 작지만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목소리들을 너무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예로 지난 14일 여의도 공원에 3만명의 민중들이 모여 치른 민중대회에 대한 각 신문의 보도는 매우 인색했다. 그나마 모든 일간지가 사회면에서 민중대회를 다뤘으나 대부분 짧은 스테이트에 그쳤으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냥 언제 어디서 누가 집회를 가졌다는 보도로 그쳤다. 만약 ‘그 많은 인원이 한곳에 모여 정치권을 규탄하지 않고 조용히 종교행사를 가졌더라면...’이라고 가정 해본다면 매우 씁쓸해진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중들의 불만이 더 강하게 터져나오는 매일수록 이러한 보도는 더 간결해졌고, 심지어 아예 보도되지 않거나 혹은 누가 폭력적인 집회를 해서 교통이 혼잡하더라도 보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누구나 기억을 더듬어 이제까지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학생·노동자·민중들의 집회 기사를 떠올려 본다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보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보도의 행태는 정권과 정치권을 규탄하는 집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돈있고 힘있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나가는 사람들 또한 기성언론들에 의해 소외당하고 있다.

지난 12일 3급 장애인인 철거민(53세, 여)이 철거 용역원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철거민이 아니고 가해자가 돈 있고 힘있는 자들로부터 지시받은 철거용역원들이 아니었다면 일간지에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철거민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경우는 지난 5월 수원의 한 철거촌에서 철거민들이 사제총을 사용했다는 정도이다. 당시에도 일간지들은 사제총기를 보유하고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었다. 하지만 그 전에 철거민들에 대한 보도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던가 보다 사제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편파보도란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철거민들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작업 조건이 열악해 일을 못하겠다고 사업에 돌입해도 역시 기성언론들은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인다.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거나, 일간지를 통해서만 알 수 없지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에 비춰본다면 아마도 그들이 정당성을 상실할 때까지 보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역시, 이제까지의 노동자 파업 관련 보도의 초점은 그들의 파업은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친다는데 맞춰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혹은 사회의 오통을 공론화 시키고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진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아침 신문에 서 받아 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ggu.ac.kr

이주의 열사

권미경(당시 22세)

1982년 2월 권미경 열사는 초등학교 졸업 후 가정형편상 보세공장에 취직했지만 야간중학교를 다니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91년 11월 신발업체인(주)대봉에 취직하며 지역 노동자들의 모임에 나가 노동자의식에 눈을 뜬 그녀는 ‘원가절감’ ‘결근방지’ ‘30분 더 일하기’ 등의 탄압받는 노동자의 현실에 반발하여 파업으로 맞섰다.

어용노조의 협조로 노동통제강화가 심해지던 당시 열사는 공장 옥상에서 투신,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그녀는 팔뚝에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는 유서를 남긴채 그해 겨울처럼 싸늘하게 식었다.



동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시행

동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시행에 따른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함.

- 1. 연수기간 : 2000. 1. 3 ~ 2. 12(6주) <출국 : 2000. 1. 3(월), 귀국 : 2000. 2. 14(월)>
2.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3. 연수인원 : 제한없음
4. 연수내용 :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학습(독해·회화·특별강좌)
5. 연수경비 : 자비부담

Table with 3 columns: 구 분, 상해사범대학, 비고(인당). Rows include 등록비, 학비, 기숙사비, 식비, 기타경비.

- 6. 기타사항 : 학점인정(“해외 중국어연수” 3학점)
7.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단, 현재 졸업예정자는 제외)
8.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9.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가. 11. 22(월) ~ 11. 30(화), 나. 본관 2층 연구처 국제교류담당관실(☎ 2260-3875), 경주캠프 연구교류실(☎ 770-2042)
\* 주의사항 : 중국 상해사범대학 입학신청서(소정양식) 작성시, “여권에 관한 사항” 및 “본인 중국어 능력(수준)”은 반드시 기입할 것.

서울캠 연구처

동계 사회봉사 단원모집

99학년도 겨울방학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2. 신청서 접수기간 : 99. 12. 5(월) ~ 12. 17(금)
3. 봉사활동 기간 : 99. 12. 20(월) ~ 2000. 2. 28(월)
4.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3층 학생복지실 내☎ 2260-3049)
5. 봉사활동대상단체 : 육수종합사회복지관의 50여개 기관(봉사활동내용 : 3백여개 프로그램)
(아동·청소년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사회단체 등)
6. 봉사결과(학점인정) :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2000학년도 1학기에 학점 반영)

\*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계절별로 2학점까지 인정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서울캠 참사람봉사단

동계방학 외국어특강

Table with columns for English Conversation levels (Beginning, Intermediate, Higher, Advanced) and TOEIC scores. Includes rows for 1st and 2nd semesters with instructor names and fees.

문의전화 2260-3470/1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21세기의 대학과 대학인 **논단**

# 탄력과 개성을 갖춘 작은 대학으로

구한말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시작된 우리 대학의 역사도 어언 1세기를 넘기고 이제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지난 백년간 사회의 어느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의 위상과 기능도 많은 변천을 거쳤다. 일제시대에 사각모만 보아도 장안의 처녀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었던 귀족신분에서부터 해방후 신생 대한민국의 어두웠던 시절의 고뇌를 두어깨에 지고 밤새워 고민하던 엘리트의 시절을 거쳐, 80년대 이후 대학정원의 급속한 증가로 대학교육이 대중화됨에 따라 건전한 사회의 중추인력을 길러내는 곳이 되었다.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 많은 대학이 난립함에 따라 부실한 대학도 많이 생기고 대학이 쓸데없는 '학위증서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는, 고학력 실업문제의 주범이라는 허머 아예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대학은 매우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의 틀로는 밀려오는 새시대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먼저 우리의 대학이 그동안 내세워왔던 '학문의 삼아탑'이니

'지성의 산실'이니 하는 고상한 레토릭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 사회의 지식의 발전과 전수, 보급을 대학이 독점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대학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각종 문화센터의 강좌나 다양한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누구나 필요를 느낄 때 필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지식을 건져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 정보화를 앞서는 교수들은 사이버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실이라는 시공의 한계를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일반 고급교양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의미는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이 이러한 새로운 21세기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고 동시에 또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19세기의 봉건적, 신분적 잔재를 말소하여야 하는 묘한 처지에 놓여있다. 즉 우리의 대학은 철저하게 또 획일적으로 서열화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신분제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

교수님은 우리의 대학이 전국민을 등급화하고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학의 서열을 깨는 작업이 정말로 가장 시급함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모든 국민의 경쟁이 유치원에서 18세까지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40년은 거의 정지상태로 만드는 이 퇴행적 현상의 중심에 바로 대학이, 정확히는 대학의 서열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학에 부과된 과제는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발맞추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개성있는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우리의 대학은 과거의 재벌처럼 너무 비대하고 산만하다. 그래서 재벌그룹과 같은 우리의 대학은 여러 기능단위별로 해체되어야 한다. 끝없이 잡음을 일으키는 예체능계는 전문학교체제로 대학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각종 분야별로 전문대학원이 많이 생겨 고급직업직장을 놓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학문생산은 많은 연구소가 생겨 연구실적에 따라 지



김 동 훈  
국민대 법대 교수

원을 받으며 경쟁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좁은 의미의 대학은 직업교육이나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고급교양과정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별 분화는 우리 대학의 미신적 서열화의 실상을 드러내고 비교지표에 의한 가변적인 순위화와 이에 기초한 생산적인 경쟁을 하는 집단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대학체제에서 대학인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교수는 현재의 신분적 지위를 누리는 집단에서 전공분야의 이론적 전문가로 거듭나고 그 능력에 따라 살아야 하게 되어야 한다. 학생도 분명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성년의 나이에 걸맞게 의미있는 소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길은 대학으로'가 아니라 대학이 무엇하는 곳인가를 진지하게 되물어야 할 것이다.

## 사설

### 학생회, 바꿀건 바꾸자

울해도 역시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당당하게 건설되었다. 하지만 역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함이 연출됐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여러 후보가 나와 논쟁을 벌이며 경합을 했던 터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단독후보가 출마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이들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조건인 투표를 50%를 넘기조차 매우 힘든 실정이다. 조금 부풀리면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투표결과 뿐만이 아니다.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이 수십명을 넘지 못하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이 나와 아무리 떠들어대도 학생들의 반응은 '똥'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가 비롯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학생들과 학생회에 있다. 사회가 급변하는 것에 발맞춰 학생들의 성향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변화에 학생회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이 학교 합합댄스동아리 창립멤버가 출마해 대형멀티비전등을 동원한 유세 끝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도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현재까지 학생회의 노력은 상당히 미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학생들이 예전 같지만 바라는 모습이 그것이다.

학생회가 곧 운동권으로 인식되고, 학생들의 기존 운동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때때로 아직까지 말투나 문체만 가지고도 소위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회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다가가는데 소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학내집회가 있을 때 열심히 말하고 있는 연사를 보며 그 내용을 차치하고 고라도 그 말투에서 이미 '듣기 싫음'을 결정짓는 학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제 학생회는 본래 취지를 제외한 그 동안의 낡은 틀을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회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새로운 틀 속에서 진행해 학생들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학생회로 거듭났으면 한다.

### 경주캠 학생기구의 과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나"라는 사회 체면적 변명을 하는 무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현실의 이익을 외면하면서까지 한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많다. 메이저 음반사들의 권유를 한사코 거절하면서 일년 내내 순회공연만 다니는 가수가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 생산된 게임을 하기 위해 일본어를 배우며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매니아들도 있다.

학내에도 학생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들이 있다. 이들도 자신의 사생활과 선거자금을 털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학생기구 간부가 되기 위해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언더가수나 매니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선거초기에 불타던 투지가 무색하게도 그동안 겪어온 학생기구를 살펴보면 용두사미 학생회가 아니었다 싶다. 무수한 선거공약을 내걸며 일반학생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공약은 2학기 말이되면 점점 사그러

져 사업에 손을 놓으니 말이다. 언론협의회 공청회 및 좌담회에서 투지로 불타던 후보자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했던 현 학생기구 대표자들의 변명은 학생기구의 처음과 끝을 되풀이 하여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었다.

반복되는 이러한 태도에 학생들은 학생기구를 신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 결과가 학생기구 선거의 저조한 투표율과 학생기구가 개최하는 여러 투쟁 및 발기대회에서의 미미한 참여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생기구 집행부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현 학생들의 시대적 경향을 탓하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기구의 반복된 모습에 신물을 내고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현 학생기구 집행부들과 각 진영 후보자들은 학생기구의 이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생기구와 학생들의 두 평행선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표준교과과정 시행

## 전공은 '강화' 교양은 '축소'

### 강의평가 교수업적평가에 반영... 교수사회 경쟁 가속화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 및 교양과목의 교과과정이 대폭 바뀐다.

이는 표준교과과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교육부에 제출한 '교육개혁 우수대학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각 전공의 교육목표를 사회의 인력수요에 부응하여 교양과목에서 전공과목까지의 전과정이 유기적·조직적으로 연결된 시스템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표준교과과정은 전공과정을 성격별로 규정지어 학문지향적 전공과 산업지향적 전공을 분명히 해 각 전공별 교육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표준교과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교양선택과목은 기존의 7개 영역 중 6개 영역에서 각각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했던 것을 △1영역-불교와 문화 △2영역-인문학 △3영역-사회과학 △4영역-자연과학 △5영역-외국어 △6영역-일반교양으로 나누어 이 중 5개 영역에서 각 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일반교양은 7개 영역이 6개 영역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영역에서 배제됐던 나머지 교과과목을 다양하게 포함하며,

교양선택과목은 42학점을 초과해 수강할 수 없게 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 학사지원실의 박군서 과장은 "전공 공부에 소홀히 하고 쉬운 교양과목으로 학점을 채우려 하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모집단위 광역화의 취지에 걸 맞는 다전공 활성화에 의해 복수전공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사과대, 경영대는 교양선택 과목에 각 대학 '지정공통과목'을 두어 9학점 이상 이수하게 했으며, 공과대와 정보산업대는 공학전문자격과정을 두어 기초과학 및 수학과정(Basic Science and Math : BSM)으로 제 4영역에서만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4영역'을 제외한 다섯 영역에서 각각 3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1학과와 2학과로 나누어 개설되었던 교양강좌는 인문학 14과목과 사회과학 12과목을 매학기 개설하며, 공과대와 정산대의 BSM과정 실시로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과학 영역의 7개 과목도 매학기 개설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강신청이 저조해 2회 폐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좌를 없애고,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거나



단계적으로 교양강좌를 줄어나갈 예정이어서 학교당국은 교양강좌의 확충을 요구하는 학생회와 강좌를 담당하는 강사 양측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전공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질 높은 전공수업을 위해 교원의 강의부담을 일주일일에 6시간 강의로 줄이고 각 전공 개설학점을 80학점 내외로 제한했다. 대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평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시간강사의 강의 평가도 실시해 급여와 임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연봉제 도입으로 교수업적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해 진 점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으로 교수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교수·강사들과 학교사이

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대해 학교측은 "차츰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나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시행의 상당 부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표준교과과정은 10년 이상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분교만의 특성화된 교과과정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2002년 대학개방과 무시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매년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개편된다. 또한 앞으로 모집단위는 더욱 광역화 될 것으로 전망돼 운영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 매체비평

## -뮤지컬

### '태풍'

“우리 것도 아닌, 서양 것도 아닌 모호한 혼합은 외적인 것에 치우쳐 전통의 맥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윤택의 '태풍'은 불거리가 많은 뮤지컬이었다. 막이 오르면 태풍에 휩쓸리는 배와 격정적인 바다의 모습, 동화적 분위기를 더해주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의상, 요정으로 분한 여배우들의 화려한 몸짓. 누가 보아도 많은 물량이 투자된 뮤지컬임을 알 수 있었다. 아, 이 많은 불거리를 본 나는 분명 신이 났어야 했다. 그런데 극장 문을 나서면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던 건 왜 일까?

이윤택의 '태풍'은 불거리가 많은 뮤지컬이었다. 막이 오르면 태풍에 휩쓸리는 배와 격정적인 바다의 모습, 동화적 분위기를 더해주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의상, 요정으로 분한 여배우들의 화려한 몸짓. 누가 보아도 많은 물량이 투자된 뮤지컬임을 알 수 있었다. 아, 이 많은 불거리를 본 나는 분명 신이 났어야 했다. 그런데 극장 문을 나서면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던 건 왜 일까?

'태풍'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윤택, 그가 뮤지컬로 이 시대에 풀어나는 세익스피어의 '태풍'은 어떤 것일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1막에서는 정권을 찬탈 당한 프로스페로가 마법을 터득하여 부패한 왕국의 왕과 왕자, 신하들을 태풍을 이용하여 섬으로 불러온다.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와 페디난트 왕자는 사랑에 빠지고,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은 표류한 섬에서조차 왕이 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이 1막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1시간 반 동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사건을 통해 보여지는 캐릭터가 아닌 설명처럼 구구절절한 노래는 극적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2막이 되면 프로스페로는 미란다와 페디난트의 결혼을 허락하며 자신이 상상하는 낙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눈부신 웃음 입고 국적 불명의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무희들.

이윤택은 연극 작업에 대한 목표가 서구 근대성 문화의 극복과 우리 것에 대한 탐색이라고 말한다. 그가 우리 것과

다른 것의 공존을 위한 연결고리로 택한 것이 세익스피어였고, 그의 작품을 통해 '보편적 공연기호'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이윤택이 생각하는 '보편적 공연기호'의 위험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것도 아닌, 서양 것도 아닌 모호한 혼합.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엉성한 혼합은 외적인 것에 치우쳐 전통의 맥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춤과 음악은 조화되지 못하고 태풍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다.

다시 태풍은 섬을 쓸어버린다. 프로스페로와 왕은 화해하고, 미란다와 페디난트는 축복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배우들의 가창력은 부족했지만 이정화와 남경주의 듀엣은 돋보였다.

추악한 인간의 속성은 태풍에 휩쓸려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사람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지는 메시지는 극 속에 용해되지 못한 채 관객에게 뚜렷이 강요된다. 새천년을 앞두고 뭔가 획기적이고, 기념비적인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닐까? 새천년을 연극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의미깊은 기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노력이 바탕이 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프로스페로의 입을 통해 전하는 마지막 대사는 멋지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연극을 맡깁시다!"

'태풍'은 이미 그쳤다. 그러나 이윤택은 아직 태풍 속에 있다. 최민아 연극영화과 석사과정 2학기

# 잡인소식

## 학교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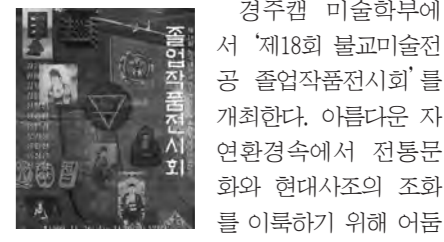
### 몽계구름 창작곡 발표회



서울캠프 창작음악 동아리 몽계구름이 13번째 정기공연이자 2번째인 창작곡 발표회를 갖는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노래한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도 신선한 이미지를 선사할 듯.

다음달 3일, 오후 6시 반. 서울캠프 본관 중강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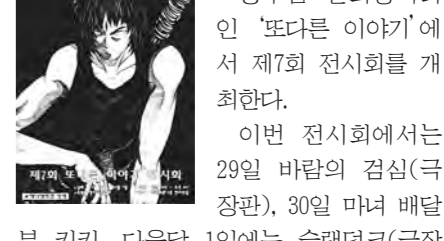
### 블고미술전공 졸업작품전



경주캠프 미술학부에서 '제18회 블고미술전공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전통문화와 현대사조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애를 밝히며 노력해온 작업의 결실이라고.

내일(30일)까지. 경주 서리밭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 또다른 이야기 전시회



경주캠프 만화동아리인 '또다른 이야기'에서 제7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9일 바람의 검심(극장판), 30일 마녀 배달부 키키, 다음달 1일에는 슬램덩크(극장판) 등의 애니메이션도 함께 상영할 예정이다.

오늘(29일)부터 1일까지. 경주캠프 학생회관 2층 전시회실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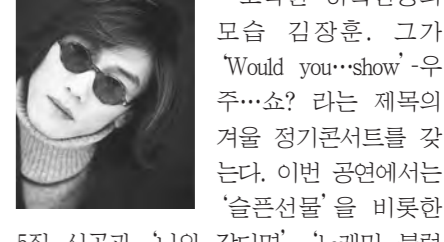
## 학교 밖에서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민가협에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1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정태훈, 박은옥, 윤도현밴드, 김중서 외 다수가 출연하여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는 여균동 감독의 국가보안법 단편영화 '내 컴퓨터'도 상영될 예정이다.

다음달 19일, 오후 5시. 장충체육관에서. 문의 (02)783-2806.

### 김장훈 겨울 정기 콘서트



고독한 하록선상의 모습 김장훈. 그가 'Would you...show' -우주...쇼? 라는 제목의 겨울 정기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슬픈선물'을 비롯한 5집 신곡과 '나와 같다면' '노래만 불렀지'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관객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동화되는 콘서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음달 10일부터 24일까지. 평일 7시 반, 토 7시, 일 6시 반, 24일 7시·11시. 정동문화예술회관에서. 문의 (02)3141-1720~1.

# “국가검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 제4회 인권영화제 지난 26일 막을라

오는 2일까지 서울캠프 예술극장에서



지난 26일 서울캠프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제4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됐다.

“인권영화제에 대한 참여도가 해마다 늘어나 올해는 다양한 한국작품들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라며 이번 인권영화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인권영화제 홍보담당 남수영씨.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인권영화제가 인권운동사랑방(대표=서준식)과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공동주관으로 지난 26일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인권 영화제에 이어 그 누구도 감히 선보이지 못했던 다큐멘터리 한국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영화들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스크린 위에 올려진 것이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총 44편의 영화중 '국가의 범죄-레드헌트'와 '민들레', '또 하나의 세상', '무명천 할머니' 등 14편의 한국영화가 참여해 인권영화제의 입지가 탄탄하게 다져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엔 상영되는 한국영화 중 제주 4.3항쟁을 다룬 영화, '국가의 범죄-레드헌트'는 지난 2회 인권영화제에서 이적물로 간주돼 서준식씨 구속사태까지 갈아앉힌 '레드헌트'를 새롭게 단장해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어서 많은 이의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개막식에서 상영된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는 미국의 흑인 좌익단체 흑표범당과 그의 지지자 무미아 아부자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지금은 비록 정권의 공작으로 와해됐지만 미국에서 흑인들로 구성된 좌익 단체, 흑표범당의 지지자 무미아 아부자말은 백인 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그 무죄를

입증하는 사실들이 하나를 밝혀지는 등 미국내부에 만연해 있는 백인우월주의로 반인권적인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관객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여 이를 미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간다.

특히 부대행사 중 오는 30일부터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뉴리운드 협상과 관련해 WTO 뉴리운드 협상에 대한 반대 민중행동 특별 부문'에서 자신의 회포를 털어놓은 임근님의 우화로 답이낸 '황제의 새옷' 등을 상영하고, 인권 운동가와 관객의 만남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는 등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행사는 한국영화 중 우수한 작품 하나를 올해 처음으로 '인권영화상'으로 선정해 이 작품의 상영을 끝으로 다음달 2일 막을 내린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 개막식 이모저모



하이라이트 소개 및 상영 △기획자 김정하씨의 영화제 주요 상영작 하이라이트 소개 및 상영 △가수 이정렬씨와 정태훈씨의 축하공연 △개막작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작으로는 다큐멘터리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All power to the people)가 상영됐다. 미국 흑표범당의 흥망성쇠를 다룬 이 영화는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역올한 사형집행상고를 통해 미국사회의 흑인들의 인권현실을 밝힌 작품이다.

한편 이번 개막식은 국가검열 제도의 폐지와 영화제의 대중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개막작의 주인공인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중지 및 석방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부대행사도 같이 치뤄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인권문제와 결부시키기 위해 개막식 외에 많은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 roket123@cakra.dongguk.ac.kr

제4회 인권영화제 개막식이 5백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7시 본교 서울캠프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영화배우 문성근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의 인사말과 개막선언으로 시작됐다.

서준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검열제가 없어지는 날까지 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김진균(서울대 사회학교수)사회진보연대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진균교수는 축사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이어진 영화제인만큼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화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난 1, 2회 상영작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ALL POWER TO THE PEOPLE**  
인권영화제 개막작. 다큐멘터리. 백인경찰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해방투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의 무미아 아부자말을 다룬 다큐멘터리. 미국, 97년, 115분.



**변방 OUTSKIRTS**  
여전히 집단농장생활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변방 우랄의 농장노동자들이 벌이는 죄중우울 코믹투쟁기. 우크라이나, 98년, 95분.



**소코로 노브레-살은 어딘가에 SOCORO NOBRE-LIFE SOMEWHERE ELSE**  
'중앙역'의 윌터 샬레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나치의 탄압으로 브라질로 망명한 조카가 프란스 크리치크베르그와 브라질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사이의 편지를 통한 아름다운 관계를 시점으로 묘사한 작품. 브라질, 95년, 23분.



**민들레**  
1986년 창립된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국민의 정부 이후 1년여 동안의 투쟁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 가족의 투쟁 이야기. 한국, 99년, 58분.



**국가범죄-레드헌트2**  
97년 열린 2회 인권영화제는 대표가 구속되고, 영화제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바로 4·3항쟁의 진실을 밝히는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하기 때문. 2년 후 감독은 1편 때 하지 못한 이야기를 생존자의 증언과 역사자료를 통해 밝혀낸다. 한국, 99년, 90분.



**이골리 EGOLI**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백인들의 광산에서 착취당하며 일하다가 사라져간 흑인 광부들에게 바치는 애니메이션 작품. 영국, 89년, 7분40초.

# 메아리

## 공기업의 사유화

▲지난 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전기공급을 맡은 사기업체의 파업으로 인해 11일간 25만 가구의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은행업자가 마비되고 교통과 통신도 두절됐다. 또, 최근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전력 도소매 시장에서 전기회사의 횡포로 인해 5일간 MW/h당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주민들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전력산업 개편이라는 명목 아래 한전을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만약 한전이 사기업으로 전환될 때 전기요금 책정은 회사에게 이양될 것이며, 한전은 공기업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의해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는게 기업의 생리이지 않겠는가? 이는 최근 단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선수의 입장을 무시한 해태측의 태도로 인해 선동령의 은퇴를 앞당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은 "만약 전력산업개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때 지금보다 전기요금이 최고 22%까지 인상된다"고 발표

했다. 따라서 한전이 사기업으로 변환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국민경제불안과 물가상승이라는 문제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일 것이다.

▲IMF를 당한지 불과 2년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경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 통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경제회생의 싹을 짓밟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전이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전환되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르헨티나나 미국 중서부 지역의 사례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IMF를 탈출하려는 한국경제에 백테를 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임을 정부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성규 편집부장 dream@mail.dongguk.ac.kr

소나기

좋은 대학이 되려면...

POWER OF DONGGUK

△좋은 대학이 되려면 좋은 교수들이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학교가 좋은 대학이 되려면 나를 총장으로 선임시켜야 한다.  
 △나는 좋은 대학보다는 등록금이싼 대학이 좋다.  
 △좋은 대학은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좋은 대학 우리대학! 예구 거짓말을 해서 내코가 석자 됐네.  
 △좋은 대학(?) 닥치고 냉난방 설치나 해!  
 △내가 장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이 된다.  
 △누굴 위해 좋은 대학이 존재하는가?  
 △연인들이 우글대는 대학이 뭐가 좋은 대학이야?  
 △우리 모두 좋은 대학 건설 위해 건배!  
 △나도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내 소원이로소이다.  
 △충성! 대학 중에 가장 좋은 대학은 군대다.  
 △밀레니엄 대학은 좋은 대학(?)  
 △오래 오래 천년이 지나가도 안 변할 동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니(?)  
 △제가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게 꿈이걸랑요.  
 △겉보다 속이 짝 차야지!  
 △학생이 잘 되야지 좋은 대학~  
 △학생이 바로 서야 대학이 바로 선다.  
 △이건 안 되지, 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나 하나가 동국대의 한 학우임을 알고 잘 만들어 나가면 된다.  
 △총장 선출의 투명성 보장.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  
 △늙어촌 특별전형 혜택을 없애고 장학금의 수혜를 공평히 했으면 좋겠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고지서에 억지로 수납대금을 넣어서 강매하지 말라!  
 △학교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기 전에 그대가 학교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좋은 학생이 많아야 한다. 고로 동대생들 반성합시다.  
 △장학금을 내보라.

지나치게 과열된 후보자간 경쟁

학생들의 무관심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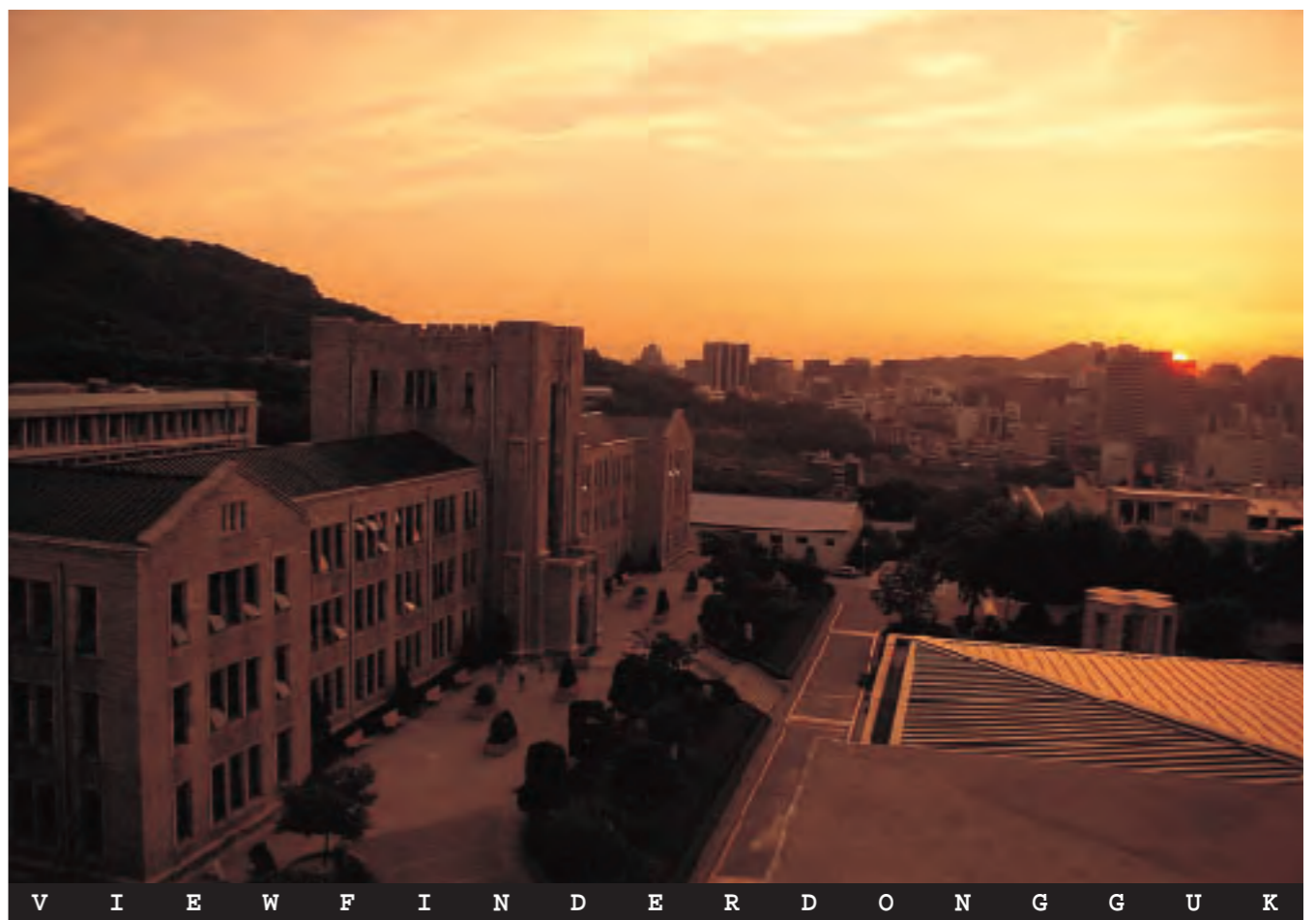
요즘 우리 은행골에도 각 단체 및 차기구 회장자리를 놓고 선거유세가 뜨겁다. 각자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몇가지 안타까운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각 후보간의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후보자를 돕는 인원을 많이 동원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압감(?)까지 줄 정도이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소리가 지나쳐 공해가 되기도 한다. 어느 수업에서는 선거유세 때문에 강의가 중단된 적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런 후보자들의 열정과 무관하게 우리 학우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물론 나도 큰 소리를 낼 처지는 아니지만 갈수록 학생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또 내 눈에 비친 선거는 서로의 이익 관계가 많이 결부되어 있는 것 같다. 음성적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쪽에 출마한 사람들과 서로 밀어주기를 한다던지, 자기과 출신이라고 한 표를 부탁 한다던지...

지...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선거홍보 전단지에 관해서이다.  
 물론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너무 좋은 재질의 종이를 사용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받은 학생들은 펼쳐 보지도 않고 혹은 대충 읽고 버리기 일쑤이다.  
 유세기간 동안 학교 내에 어디를 가든 버려진 전단지 가 쉽게 눈에 띄었다. 심지어 학교 밖과 버스에서도 버려진 전단지가 풀려 다녔다. 이것은 우리 학교 얼굴에 학생들 스스로가 먹칠을 하는 격이다. 차라리 모든 후보들의 프로필과 선거공약을 한군데 모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홍보지를 만들되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환경을 생각한 재생용지 같은 것을 사용해보면 어떨까 싶다.  
 다음 선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더 나은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박소영 (인문과학대 외국어문학부)

양식있는 자보문화 정착 필요

우리가 학교의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보이다.  
 자보 문화는 대학만의 독특한 방식의 의사전달 도구로써 학내의 많은 모임의 연락은 자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리 공연과 소모임, 동문회, 개강파티, 학과의 행사일정 또는 학내 문제점 등을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계단과 길목에 형형색색의 자보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보들에 비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자보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붙이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잘 활용하면 편한 소식통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지저분한 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정문에는 자보 이용을 위한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게시판 이용보다는 각 단체의 길목에 여러 겹으로 부착되고 있다.  
 자보를 붙이는 학우들은 자신들만이 자보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무조건 많이 붙이기, 남의 것을 떼고 자신들의 것을 붙이기, 특이하게 바닥에 글자를 만들어 붙이기 등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눈에 띌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  
 더구나 날씨가 지나면 스스로 수거해야 하는 기본상식을 무시하고있다. 물론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아주씨들이

열심히 떼어내고는 있지만 자고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보들을 다 떼어내기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회관 옥상에는 어떻게 저것을 붙일 수 있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아슬하게 붙여놓은 글자들이 있었다. 얼마나 잘 붙였는지 한참이 지나도 뜯겨지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간이 지나자 떼어내는 듯 허더니 힘겨운지 도중에 수거작업을 그만두었었는데 며칠 전 원효관을 내려가는 길에 옥상의 글자들을 아주씨들이 힘겹게 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보 이용은 학생들만이 가지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전달 도구이다.  
 그러나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종강파티와 졸업생 환송회 등 많은 자보가 또 붙을 것이다. 그런 자보를 학우들이 잘 이용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승현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도심속 빌딩위로 번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약속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활영=송광수 등문

한 해가 저물고...

다고 ...

Thais

죽어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잃어버린 존재를 그리워하며  
 저주받은 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던 그녀  
 죽어서 없어지는 허무함에  
 놀라 일어나는 어느 수사관에서  
 자신의 아픔을 살며시 벗어던지고  
 흘러내리는 하이얀 눈물 거울삼아  
 사랑의 양면성을 빛으로  
 표현한다.

서상훈(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모니터링

제 1285호 동대신문을 읽고

문화면 총평 및 사진기사 심층성 부족  
 남산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당위성 제시해야

누구나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면 우선 신문의 1면 또는 사회면의 만화부터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컷의 만화로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동대신문만은 천천히 살펴보는 편이다. 오히려 기다려진다고나 할까 어쩌다 건너뛰는 날이면 더욱 안타깝다.  
 애독자로서 괜한 혼수를 하자면 지난 호의 '경주, 살아있는 천년의 고도'는 조금만 경주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너무 밋밋하고 단순히 경주를 알리기 위한 범주에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한

다. 또한 눈에 익은 여러 사진의 배열도 아까운 지면의 낭비와 상대적으로 기사의 빈약을 가져 왔다. 차라리 거창한(?) 제목보다는 '경주 남산'식으로 하여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마땅하다는 등으로 의도하던가, 보존과 개발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경주지역의 문제점을 더 심도 있게 부각시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제 새 천년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천명의 연륜에 들어서는 동대신문은 한층 수준 높은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이를 그대로 대학원문화화를 선도해 나가 주길 바란다.  
 박용하(기획처 기획예산팀 과장)

TEL: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악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김치볶음밥(1300) 소고기떡갈채(1500)
화	제육덮밥(1500) 순두부찌개(1300)
수	참치회덮밥(1500) 김치어묵밥(1300)
목	해물짜장덮밥(1500) 돈갈비찜(1500)
금	닭갈비(1500) 오모라이스(15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제육김치덮밥(15300) 알탕(3300) 소고기잡채(1300)
화	닭갈비백반(1500) 버섯전골(3300) 만두카레라이스(1500) 두부김치(3300)
수	오징어덮밥(1500) 꼬리곰탕(4200) 소고기볶음밥(1300) 칠면볶음밥(3300)
목	불고기팔라토(1500) 어묵전골(3300) 아묵백반(1300) 제육볶음(3500)
금	순살돈까스(1500) 달래된장국(3000) 신채비빔밥(1300) 돌솥비빔밥(3300)

(단위: 원)

동국관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호박김치된장국(1300) 김치두부국(1300) 햄볶음밥(1600) 설렁탕(1800)
화	무채국(1300) 수제비(1300) 오징어덮밥(1600) 쇠고기볶음밥(1700)
수	얼무된장국(1300) 찜닭(1300) 카레라이스(1500) 갈비탕(1800)
목	쇠고기김치국(1300) 돼지국밥(1300) 돈까스(1500) 해물덮밥(1800)
금	무콩나물국(1300) 얼갈이국(1300) 돈육덮밥(1600) 잡채덮밥(1800)
토	미역두부볶음국(1300) 쇠고기덮밥(1700)
일	재첩국(1300) 김치볶음밥(1600)

(단위: 원)

목격글

축하합니다

△to성현 11월 30일 귀빠진날 추카해! 정말루. -지백 일동  
 △경영학부 태현이 오빠 생일 축하해요!  
 -미모의 여인  
 △12월 1일 Youth-Hostel 20th "소라"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는 선배가  
 △유미양 내년에 일본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정말 아쉽네요. 한국에서 맞는 첫 생일을 중심으로 추카추카!  
 -사회화와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학부 선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 세기 첫 시작을 향한 힘찬 몸짓을 바라며... -사회대 학우

열심히 합시다

△투지만 넘치는 중량급 3위 이준형 파이팅!  
 -경형 96학번  
 △민성이 형 힘내요! 남은 학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경통 98  
 △일일호프 준비하는 99학번 열심히 합시다!  
 -역교 순수 男 재원  
 △시험 잘 보세요!  
 -정차과 원생이  
 △경주캠퍼스에 있는 남·는·이 공연 잘하세요.  
 -서울캠서 곰 누나가

그리고...

△翁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용교 활동 부장  
 △고유진 정말 이쁘다. 아쉽다.  
 △동용아 설 불러와라. 내가 썼으니 너도 쓰래이.

은방글

축하합니다

△지난 22일 C·H군과 M·Y양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둘의 사랑이 영원하길...  
 -셀렁이가  
 △효정아! 회장된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남희도 총무당선된거 축하한다. 내년엔 더 열심히 하길 바란다. -선배가

수고하셨습니다

△호우21기를 훌륭 정말 수고했다. 그대들의 단결과 열정과 사랑을 잊지 못할까다.  
 -불꽃투혼 TG  
 △6대 불문대 식구 여러분 정말 고생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한다. -쟁이  
 △동몽전시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뿌듯함, 허전함을 가지면서 후배들 모두 수고했고 또 내내에도 좋은 전시회를 가지길  
 -한 학우가

바라며.  
 -동몽광  
 △동국불링 백상배 무사히 끝났거 축하하고 모두 수고했어요. 파이팅!!-예쁜 총무  
 △한희대 합창단 소리모아 힘든 가운데 공연 준비하느라 수고많으셨어요. 모두 행복하길...

열심히 합시다

△3대 간호학과 학생회 여러분 앞으로 학과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98일동

알립니다

△동국대 만화동아리 또·다·리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학생회관 2층에서 전시회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그리고...

△39기 형들 가시는길 사뿐히 드러 밟고 가시옵소서. 패빠이!  
 -동물한마리  
 △복사지의 불친절 정말 짜증난다.  
 -한 학우가